

# 부실기업 퇴출·승강제 도입... 코스닥 신뢰 회복 나선다

시총 약 479조, 코스피 6.5%에 불과  
부정거래 등 시장 신뢰도 떨어뜨려  
AI 반도체 등 성장기업 유치 필요

지난 30년간 코스닥 상위 100대 기업이 앞다투어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갔고, 그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위 기업 간 시가총액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지난 1996년 '한국의 나스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엔비디아·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이 이끄는 나스닥과는 달리 사실상 '코스피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 CEO들도 "시장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코스닥이 성장기업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기대감으로 그쳐선 안 되고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코스닥 상위 기업 시총, 코스피의 11%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478조 7740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최초 집계일인 1997년 1월 3일(7조2950억원) 대비 6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시장 저변도 크게 넓어졌다. 개장 초기 376개 수준이던 종목 수는 현재 1822개로 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거래 규모 확대 속도는 더욱 가팔랐다. 관련 통계 최초 집계 연도인 1997년 하루 평균 40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올해 평균 13조 7340억원대로 34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시총 기준 코스피의 6.50%에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게임(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그친다.

코스닥 상위 기업들로 이를 압축해봐도 시총은 20년째 코스피의 10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상위 100사 시가총액 합계는 281조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위 100곳(2549조원)의 11.03% 수준이다. 이는 2002년 11%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 중이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18조원)은 코스피에선 43위 수준이다.

미국 나스닥은 다르다. 미 나스닥 100대 기업의 시총 합계는 한국 코스피에 대응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100대 기업 시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미국 증시 전체에서 시총 1~4등인 엔비디아·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를 주름잡는 IT 기업들이 모두 나스닥에 포진해 있다. 미국 주식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나스닥 기업이다.

우량기업들이 떠나면서 흔히 먹게 없

는 시장이 됐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엘앤에프 등 굴직한 주주들이 잇따라 코스피행을 택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까지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돈이 코스피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올해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가운데 약 8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뉴욕타임즈(NYT)는 한국에서 일부 고령층이 퇴직연금과 보험 해약금을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 전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코스닥에 건실한 기업들도 많지만, 이른바 '작전세력'이 주가를 부양시켜 '한탕' 하고 빠지는 용도로 쓰는 부실 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98건 중 66건(67.3%)이 코스닥에서 발생했다. 코스피 28건(28.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거짓 정보나 풍문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의 경우 코스닥 종목이 16건으로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다.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실망한 개인들은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시장을 떠나고 있다.

## ◆중미 기업 퇴출, 시장 활성화 정책 마중물 될까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사교가 생기고, 그런 모습이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 가능성을 보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상향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장 허들은 낮춰야겠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기반을 넓히기 위해 코스닥 승강제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출시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역시 성장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카드로 거론된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지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코스닥 상장사를 '프리미엄·스탠다드' 등 단계로 나눠 구분하는 이른바 '승강제'는 7월 1일 30주년 행사에서 방향성이 제

시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자문단 논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9~10월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코스닥 '프리미엄' 세그먼트 편입 기업이 70곳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승강제의 성패는 지수 편입, 기관·연기금 수급,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유인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대표 성장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시장 논의가 반복되는 만큼, 우량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추진 중인 코스닥 승강제를 출범시켜 코스닥 시장 내 '프리미엄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오는 마중물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벨리온·퓨리오사AI 같은 차세대 AI(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코스닥으로 유도하는 것도 성장기업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과제로 꼽힌다.

한편, 코스닥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장사 공개가 핵심이다. 우선 7월 1일 1000원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거래소는 또 같은 달 2일부터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에도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새도약기금, 채권 1조 매입 장기연체자 11만명 '숨통'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추심 중단·취약계층 채무 소각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매입하면서 약 11만명이 장기간 이어진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들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전수 조사 결과와 매입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 167곳 가운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167개사, 전체 연체채권 규모는 5조 9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한 1조 572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총 1조 314억원 규모 채권에 대한 매입 협의를 마쳤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을 포함한 4개사의 채권 1조 56억원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사의 258억원은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롤러코스피' 만든 반도체 쏠림... 서킷브레이커 역대 최대

레버리지 ETF 확산, 변동성 키워  
삼성전선 실적·FOMC에 촉각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7월 실적 시즌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옮겨가고 있다. 6월에는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확산이 시장 변동성을 키워다면, 7월에는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가이던스), 미국 통화정책이 증시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 ◆레버리지가 키운 '쏠림 장세'... 서킷브레이커도 역대급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하루 4% 이상 등락한 날이 8거래일에 달했고, 이 가운데 3거래일은 하루 변동폭이 8%를 웃돌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장중 97.78까지 치솟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안전장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 발동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발동했다. 특히 지난 23일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뒤 25일에는 마이크로 호실적에 힘입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



6월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나 7월 실적 시즌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국내 증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동했고, 하루 만인 26일 다시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작동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 안전장치가 발동되는 이례적인 장세가 이어져 그야말로 예측 불가의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상태가 됐다.

증권가는 이번 변동성을 단순한 대외 악재보다 반도체 쏠림에 따른 수급 왜곡에서 찾고 있다.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승과 하락 모두 증폭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식 관련 ETF는 지난해 1월 536개에서 올해 5월 말 615개로 늘었

고, 같은 기간 레버리지 ETF도 43개까지 증가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하루 거래대금이 운용자산을 웃돌며, 상장 이후 평균 매매 회전율이 130%에 육박하는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쏠림현상 및 그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가 오늘의 급락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애플 가격 인상, 오픈AI IPO 연기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등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의 변동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오늘 하락의 본질은 반도체 쏠림 포지션의 퇴각기"라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